FX Market Daily

2026-11-16

전일동향

달러 강세에...1,337.60원에 마감

1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30.70원(15:30 기준) 대비 5.30원 상승한 1,336.00원(07:00 기준)에 개장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1,337.60원에 종가(07: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8.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35.97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6.00	1338.60	1330.40	1337.60	1333.70
엔화	834.86	837.50	832.18	835.97	-
유로화	1475.56	1480.83	1470.90	1471.17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1	-3.33	-7.56	-16.86
결제환율(수입)	-0.29	-2.01	-5.45	-13.3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연준 긴축 경계감에...1,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6.70, 15:30 기준) 대비 0.20원 상승한 1,335.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연준 긴축 경계감으로 상승 전망한다. 미국의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는 하회했으나 물가 상방 압력의 지속이 재차 확인됨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금리인상 필요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고물가 지속 우려가 맞물리면서,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AI 투자 불안에 따른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원화에 악재로 작용하며, 금일 환율은 상방으로 무게가 쏠릴 전망이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 달러 매도 우위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대외 환율 상승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9.33 ~ 1340.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419.1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20원↑
	■ 美 다우지수 : 52347.55, +50.46p(+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73.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9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